

현안과 과제

■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2
3. 종합평가	7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팀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달러화 기준 1인당 명목 GDP를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이를 살펴보고 남한 및 여타 유사한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여 북한의 현재 소득 수준을 평가하였다.

■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013달러로 2014년의 930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북한의 GDP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에 1인당 명목 GDP가 986달러를 기록하며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2000년대 초에 600달러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경제력은 과거 198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 경제력을 남한과 비교하면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의 경제력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2015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인 2만 7,195달러에 비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3.7%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7,990달러), 베트남(2,088달러), 라오스(1,779달러) 보다 낮은 수준이다. 북한과 유사한 인구 수준인 2,000만명대를 가진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 네팔 등과 비교 시 북한은 네팔(751달러) 보다는 1인당 GDP 수준이 높았으나 말레이시아(9,557달러)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아시아 국가 중 저개발 국가들인 방글라데시(1,287달러), 미얀마(1,292달러) 보다는 북한의 소득 수준은 낮았다. 북한 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네팔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이었으며, 북한과 유사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짐바브웨(1,064달러), 탄자니아(942달러), 세네갈(913달러) 등이다.

■ 종합평가

첫째, 북한은 경제 상황이 남한의 1970년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둘째,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은 자력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남북 간의 높은 소득 격차로 통일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1.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보건지표와 곡물생산량 등을 이용하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산출하여 발표

- 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상을 파악하는 일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북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며, 향후 남북통일 경제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임
 - 북한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북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남한과 격차가 감소한다면 향후 통일비용 감소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반면 북한 경제력의 급격한 쇠퇴로 정치적인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남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달러화 기준 1인당 명목 GDP를 발표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년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보건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북한의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¹⁾
 - 2012년에는 기존의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의 설명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매년 곡물생산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개선²⁾

- 자료가 제한적인 북한의 특성상 국가의 경제력과 상관관계가 높고 자료 입수가 용이한 영아사망률, 곡물생산량 및 북한의 고유한 특성 등을 이용하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산출
 -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은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위생 악화, 영양섭취 부족, 의료혜택 감소, 그리고 보건환경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북한 소득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 판단됨

○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이를 살펴보고 남한 및 여타 유사한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여 북한의 현재 소득 수준을 평가

1) “보건 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 추정 - 북한 경제,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 (현대경제연구원, 2011 . 8. 5).

2) “2011년 북한 1인당 GDP 720달러” (현대경제연구원, 2012 . 2. 24).

2.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1) 2015년 북한 경제의 현황

○ (대내) 2015년 북한 경제는 악화된 기상 여건으로 식량 작황이 줄어들었고, 물가는 과거와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된 모습

- 농업 생산량 개선 : 2015년은 상반기 동안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음
 -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5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77.8만 톤으로 2014년 534.7만 톤보다 10.7% 줄어든 것으로 추정
 - 쌀 생산량은 194.6만 톤으로 2014년 262.6만 톤보다 25.9% 감소, 옥수수 생산량은 2014년 234.9만 톤보다 2.6% 감소한 228.8만 톤을 기록
- 물가 비교적 안정 : 북한의 물가를 나타내는 대리변수 중 하나인 북한 쌀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과거와 비교해서는 안정
 - 화폐개혁 이후 불안정하였던 북한 물가는 2013년 이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의 쌀 가격은 2015년에 kg당 5,200원으로 2014년 4,925원에 비해 5.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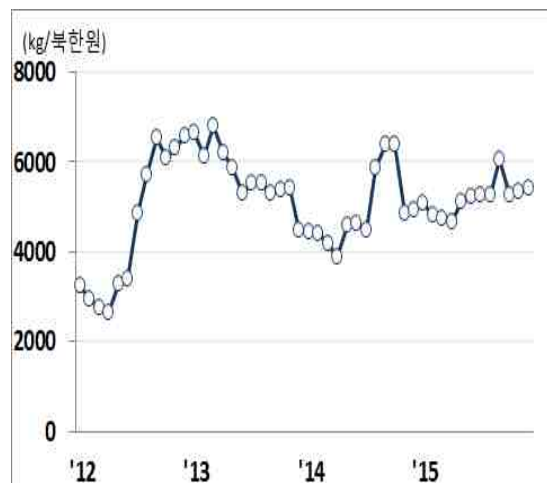
< 북한 곡물 생산량 >

(단위 : 만톤, %)

	2014	2015	증가율
곡물 생산량	534.7	477.8	-10.6
쌀	262.6	194.6	-25.9
옥수수	234.9	228.8	-2.6
감자	15.8	16.8	6.8
대두	16.0	22.0	37.2
기타 곡물	5.4	15.6	190.9

자료 :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주 : 곡물 생산량은 주 작물 기준.

< 북한 쌀 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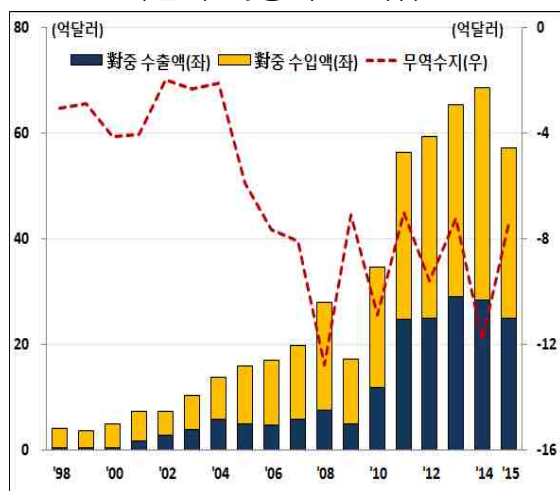


자료 : 데일리 NK.
주 :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 평균.

○ (대외) 대외적으로는 북·중 교역은 감소하였고, 남북 교역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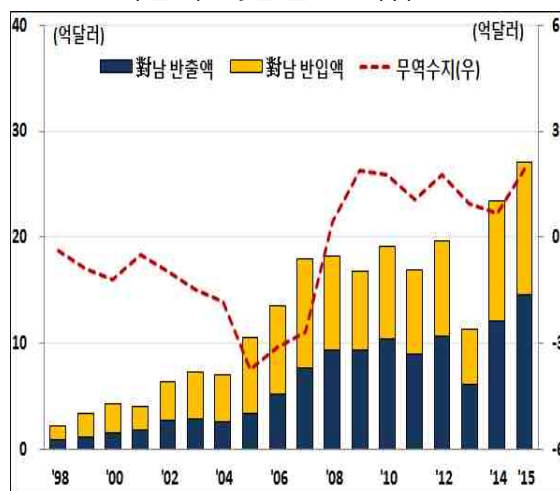
- 북·중 교역 축소 : 북·중 교역은 지하자원 수출이 줄어든 데 기인하여 전년 대비 감소
 - 2015년 북·중 교역액은 57.1억 달러를 달성해 2014년 68.6억 달러 대비 16.8% 감소함
 -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은 2014년 28.4억 달러 대비 12.6% 감소한 24.8억 달러를 기록, 수입액은 2012년 40.2억 달러 대비 12.6% 줄어든 32.3억 달러를 기록
 -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하여 2014년도 11.8억 달러 적자에서 2015년도 7.4억 달러 적자로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
- 남·북 교역 소폭 증가 : 2014년 이후 정상화되었던 개성공단의 영향으로 2015년 남·북 교역은 양적으로 증가³⁾
 - 2015년 남·북 교역액은 전년 대비 15.7% 늘어난 27.1억 달러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 북한의 남한에 대한 반출액은 14.5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 12.1억 달러보다 20.4% 증가, 반입액은 12.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 11.4억 달러보다 10.7% 늘어남

< 북한의 對중국 교역규모 >



자료 : 무역협회.

< 북한의 對남한 교역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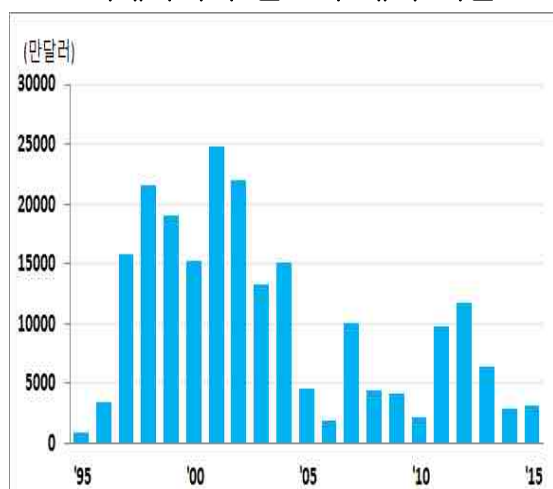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3)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다시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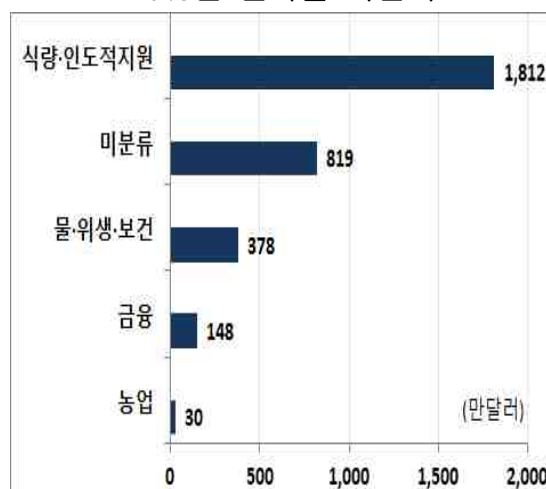
- 국제사회 지원 소폭 증가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15년에도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며 소폭 증가에 그침
 - 2015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3,187만 달러로 2014년 2,835만 달러에 비해 다소 늘어났지만 2011년(9,771만 달러), 2012년(11,748달러)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함
 - 분야별 지원액은 식량·인도적지원이 1,812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물·위생·보건에 관련된 지원이 317만 달러, 금융 148만 달러, 보건 61만 달러, 농업 30만 달러 등이었음

<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 2015년 분야별 지원액 >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2)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 (분석방법) 전세계 198개국의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 후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GDP를 추정

- 종속변수에 1인당 GDP를 독립변수에는 영아사망률을 이용하여 패널분석 (Panel Analysis) 중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시행⁴⁾
 - 영아사망률에 log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child mortality와 UN의 자료
 - 1인당 명목 GDP에 log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

4) 자세한 분석 방법은 보건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 추정(2011.8, 현대경제연구원)을 참조.

는 IMF에서 발표한 자료

- 영아사망률 이외에 북한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추정하여 분석에 반영
- y_{it} 는 1인당 GDP에 log를 취한 값, x_{it} 는 영아사망률에 log를 취한 값, u_i 는 국가별로 나라가 가진 고유한 특성 나타내는 값

$$(분석모형) \quad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i =국가, t =연도

- 북한 영아사망률에 북한 곡물 생산량⁵⁾을 추가적으로 고려⁶⁾

- UN이 발표하는 5년 간격의 북한 영아 사망률에 곡물 생산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1년 간격의 영아사망률을 산출
-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식량농업기구가 매년 말에 실시하는 북한 작황조사에서 발표한 생산량을 사용
- 보건지표를 이용하여 분석 시 국가의 소득수준 차이, 사회체제에 따른 차이, 국가의 고유한 유전형질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건을 달리하여 추가적으로 분석 시행하였으나 결과 값에는 큰 차이 없었음

-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은 북한 통계와 보건지표 특성상 몇 가지 한계점 가짐

-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은 북한의 대략적인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모형으로서 1년 단위의 정확한 북한 GDP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한계
-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특성상 UN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영아사망률 자료 자체에 신뢰성 검증 어려움
- 보건지표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변수이며 국제사회의 지원 등이 영아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정이 상향 편의 될 가능성

○ (추정 결과) 회귀분석 결과⁷⁾ 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013달러로서, 2014년의 930달러보다 83달러 증가⁸⁾

5)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곡물생산량의 상관관계는 -0.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

6)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였으나 여전히 급격한 경제 변동 설명에는 한계를 가짐.

7) 회귀분석 결과 α 값은 11.13, β 값은 -0.69로 추정되었으며 모두 유의수준 1% 안에서 유의함. 영아사망률의 log값이 1단위 변할 때 1인당 GDP의 log값이 -0.69만큼 감소함을 의미.

8) 1인당 GDP는 명목 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실질 성장률을 의미하지 않음.

- **북한 경제의 추이** : 북한 GDP를 추정한 결과 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014년의 930달러보다 83달러 증가한 1,013달러로 추정됨
 - 북한은 1987년에 1인당 명목 GDP가 986달러를 기록하며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2000년대 초에 600달러 중반까지 하락
 -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경제가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경제력은 과거 198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최근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854달러, 2014년 930달러, 2015년 1,013달러로 경제력이 소폭 개선

- **남한과 비교** : 북한 경제력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평가되며 현재 남한의 1인당 명목 GDP의 3.7% 수준
 - 북한의 경제력 추정결과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수준으로 평가됨 (1977년 남한 1인당 명목GDP : 1,018달러)
 - 현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한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 2015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인 2만 7,195달러에 비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3.7% 수준에 불과

- **유사한 국가 간 비교** :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낮은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7,990달러), 베트남(2,088달러), 라오스(1,779달러) 보다 낮은 수준
 - 북한과 유사한 인구 수준인 2,000만명대를 가진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 네팔 등과 비교 시 북한은 네팔 보다는 1인당 GDP 수준이 높았으나 말레이시아보다는 현저히 낮았음
 - 아시아 국가 중 저개발 국가인 방글라데시(1,287달러), 미얀마(1,292달러) 보다도 북한의 소득 수준은 낮았음
 - 북한 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였으며, 북한과 유사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짐바브웨(1,064달러), 탄자니아(942달러), 세네갈(913달러) 등 아프리카 빈국들임

<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



자료 :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남한은 IMF 추정치.

< 국가 간 1인당 GDP 비교 >



주 : 2015년 기준이며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나머지 국가는 IMF 추정치.

3. 종합평가

○ 북한은 경제 수준이 여전히 남한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남북 간의 높은 소득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

- 북한은 경제 상황이 남한의 1970년대 중반에 머물고 있음
 - 북한의 경제력 추정결과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남한의 3.7% 수준이며 이것은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수준으로 평가됨
 - 2015년 작황 부진으로 북한 내 전반적인 식량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과 영양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 FAO는 최근 외부 지원이 필요한 36개 식량 부족 국가에 북한을 포함
-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은 자력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
 -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도약을 위해서 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 에너지, 자원개발, 물류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
 - 예컨대, 제철 및 정유 등 기간산업 개발, 전력시설,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공단 육성 등의 투자가 필요
 - 북한의 농가인구 1인당 생산량은 남한의 약 28.6%에 불과하여 북한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투자, 경작법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요구

- 남북 간의 높은 소득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
 - 장기적으로 통일 이전에 남북 간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해 북한은 경제 희생 및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이 필요
 - 통일 이후 지출되는 통일비용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대북 투자 시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나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

김천구 연구위원 (2072-6211, ck1009@hri.co.kr)

< 부록-1 >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결과

(단위: 달러)

년도	남한	북한				
		HRI	한국은행	UN	김병연	북한공식발표
1970	275	636	-	384	587	-
1971	298	661	-	413	598	-
1972	318	686	-	443	606	-
1973	397	704	-	477	617	-
1974	543	724	-	515	639	-
1975	599	747	-	558	641	-
1976	807	772	-	571	653	-
1977	1,018	802	-	587	626	-
1978	1,354	819	-	604	700	-
1979	1,708	837	-	622	654	-
1980	1,711	856	-	639	721	-
1981	1,870	878	-	653	760	-
1982	1,978	897	-	808	744	-
1983	2,181	912	-	794	768	-
1984	2,391	929	-	745	738	-
1985	2,458	946	-	722	738	-
1986	2,803	965	-	805	732	-
1987	3,511	986	-	836	744	-
1988	4,686	920	-	764	765	-
1989	5,736	863	-	811	786	-
1990	6,513	815	1,139	735	720	-
1991	7,523	757	1,115	663	683	-
1992	8,002	710	1,013	593	599	990
1993	8,741	687	970	503	554	991
1994	10,207	670	989	384	562	722
1995	12,340	662	1,026	222	549	587
1996	13,137	656	975	479	489	482
1997	12,133	650	794	462	472	464
1998	8,083	645	564	456	412	458
1999	10,410	641	701	452	426	454
2000	11,947	638	739	462	466	464
2001	11,259	634	686	476	433	478
2002	12,789	630	739	468	465	490
2003	14,220	633	792	471	476	524
2004	15,922	637	887	473	478	546
2005	18,658	640	1,027	548	497	-
2006	20,922	644	1,078	575	496	-
2007	23,102	647	1,120	597	471	-
2008	20,475	761	1,036	551	-	-
2009	18,339	728	932	494	-	-
2010	22,151	724	1,074	570	-	-
2011	24,156	770	1,204	638	-	-
2012	24,454	815	1,217	643	-	-
2013	25,998	854	1,259	666	-	-
2014	27,970	930	1,318	696	-	-
2015	27,195	1,013	1,231	-	-	-

< 부록-2 > 2015년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단위 : 달러)

순위	국가명	1인당GDP	순위	국가명	1인당GDP
1	룩셈부르크	101,994	41	세인트키츠네비스	16,110
2	스위스	80,675	42	팔라우	16,070
3	카타르	76,576	43	슬로바키아	15,992
4	노르웨이	74,822	44	바베이도스	15,774
5	미국	55,805	45	우루과이	15,748
6	싱가폴	52,888	46	오만	15,233
7	덴마크	52,114	47	세이셸	14,941
8	아일랜드	51,351	48	앤티카바부다	14,414
9	호주	50,962	49	리투아니아	14,210
10	아이슬란드	50,855	50	라트비아	13,619
11	스웨덴	49,866	51	아르헨티나	13,589
12	산마리노	49,847	52	칠레	13,341
13	영국	43,771	53	파나마	13,013
14	오스트리아	43,724	54	폴란드	12,495
15	네덜란드	43,603	55	헝가리	12,240
16	캐나다	43,332	56	적도기니	11,762
17	핀란드	41,974	57	크로아티아	11,573
18	독일	40,997	58	네바논	11,237
19	벨기에	40,107	59	코스타리카	10,936
20	프랑스	37,675	60	카자흐스탄	9,796
21	뉴질랜드	37,045	61	말레이시아	9,557
22	아랍에미리트	36,060	62	터키	9,437
23	이스라엘	35,343	63	수리남	9,306
24	일본	32,486	64	모리셔스	9,218
25	이탈리아	29,867	65	러시아	9,055
26	쿠웨이트	29,363	66	멕시코	9,009
27	브루나이	28,237	67	몰디브	9,000
28	한국	27,195	68	그레나다	8,937
29	스페인	25,865	69	루마니아	8,906
30	바하마	23,903	70	브라질	8,670
31	바레인	23,510	71	세인트루시아	8,192
32	몰타	22,829	72	중국	7,990
33	사이프러스	22,587	73	베네주엘라	7,745
34	사우디아라비아	20,813	74	가봉	7,736
35	슬로베니아	20,732	75	도미니카	7,030
36	포르투갈	19,122	76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6,882
37	트리니다드토바고	18,086	77	불가리아	6,832
38	그리스	18,064	78	도미니카공화국	6,756
39	에스토니아	17,288	79	투르크메니스탄	6,622
40	체코	17,257	80	몬테네그로	6,489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GDP 추정

순위	국가명	1인당GDP	순위	국가명	1인당GDP
81	콜롬비아	6,084	121	투발루	3,015
82	에콰도르	6,071	122	볼리비아	2,886
83	리비아	6,059	123	필리핀	2,858
84	보츠와나	6,041	124	바누아투	2,847
85	페루	6,021	125	부탄	2,843
86	나미비아	5,777	126	나이지리아	2,743
87	벨라루시	5,749	127	온두라스	2,407
88	태국	5,742	128	동티모르	2,244
89	아제르바이잔	5,739	129	수단	2,175
90	남아프리카	5,695	130	우즈베키스탄	2,121
91	요르단	5,513	131	베트남	2,088
92	피지	5,374	132	파푸아뉴기니	2,085
93	세르비아	5,120	133	콩고	2,032
94	자메이카	4,948	134	우크라이나	2,005
95	이란	4,877	135	솔로몬	1,952
96	벨리즈	4,842	136	니카라과	1,949
97	이라크	4,819	137	몰도바	1,805
98	마케도니아	4,787	138	지부티	1,788
99	사모아	4,334	139	라오스	1,779
100	알제리	4,318	140	인도	1,617
101	가이아나	4,125	141	상투메 프린시페	1,569
102	앙골라	4,100	142	파키스탄	1,450
10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4,088	143	키리바티	1,428
104	엘살바도르	4,040	144	케냐	1,388
105	파라과이	4,010	145	잠비아	1,350
106	알바니아	3,995	146	가나	1,340
107	통가	3,973	147	코트디부아르	1,315
108	몽골	3,952	148	예멘	1,303
109	과테말라	3,929	149	미얀마	1,292
110	튀니지	3,923	150	방글라데시	1,287
111	스리랑카	3,889	151	모리타니아	1,282
112	조지아	3,789	152	카메룬	1,232
113	이집트	3,740	153	캄보디아	1,168
114	아르메니아	3,535	154	키르기스탄	1,113
115	인도네시아	3,362	155	짐바브웨	1,064
116	마셜군도	3,356	156	레소토	1,052
117	스와질란드	3,140	157	북한	1,013
118	모로코	3,079	158	차드	943
119	미크로네시아	3,073	159	탄자니아	942
120	카보베르데	3,039	160	타지키스탄	922

순위	국가명	1인당GDP
161	세네갈	913
162	아이티	805
163	말리	802
164	베냉	780
165	네팔	751
166	코모로	736
167	르완다	732
168	에리트레아	695
169	에티오피아	687
170	시에라리온	659
171	우간다	620
172	부르키나파소	615
173	아프가니스탄	600
174	기니비사우	595
175	토고	569
176	기니	542
177	모잠비크	535
178	콩고민주공화국	476
179	라이베리아	474
180	감비아	451
181	니제르	405
182	마다가스카르	402
183	말라위	354
18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35
185	부룬디	306
186	남수단	221

자료 :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나머지 국가는 IMF 추정치.